



재경부, 「어독성 I급」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제외키로

□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어독성 I급」농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6일 울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200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에 의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어독성 I급」 농약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는 농업인이 부가세 10%를 납부하게 되어 약 150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농민에게 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농약사용을 줄이고 환경과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나 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경감 받는 세액을 감축하여 상대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개방 압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병해충 방제를 위한 필수농자재인 농약에 대한 과세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생산비 증가는 물론 농가소득 감소 및 영농의욕 상실 등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일부농약에 대한 영세율적용 배제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독성이란 농약에 대한 잉어의 반수치사 농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모든 농약은 어독성 I, II, III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 중 어독성 I급은 직접 양어장, 저수지 등에 유입될 수 있는 벼농사용 농약(종자소독제 제외)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작물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편 어독성 I급 농약은 전체 1,152품목 중 208개 품목으로 연간 약 1,400억원 정도가 판매되고 있다.

동부한농, 농촌사랑대잔치 성황리 마쳐 지존액상수화제, 출시 첫 해 매출 30억 기록

동부한농화학(주)의 신개념 응애약인 '지존 액상수화제' 출시 기념 '농촌사랑대잔치' 경품 증정식이 지난 8월 23일 대전 샤프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경품 증정식에는 당첨자와 동부한농화학

윤장옥 부사장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지존 액상수화제의 발전을 기원했다. 행사 1등 경품인 김치 마티즈의 행운은 최옥조 씨(경북 영천시)와 윤기호 씨(경북 상주시)에게 돌아갔고 그 외에도 삼성 평면 29인치 텔레비전과 김치 냉장고, 바이엘 독일 본사 방문 등 푸짐한 경품 증정식이 이어지면서 행사 분위기가 고조에 달했다. 지존 액상수화

경농, 친환경농자재 사업 본격 참여

(주)경농 (대표이사 이병만)은 최근 농산물시장 개방과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요구,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발맞추어 친환경 농자재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이의 일환으로 경농은 지난 6월에 식물활력강화제인 '누네띠네'를 출시한데

이어 7월에는 농산물 신선도유지제인 '스마트프레쉬'의 출시를 앞두고 전문처리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농자재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제품사용에 대한 완벽한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해 실시한 이번 '스마트프레쉬' 전문처리기사 교육은 제품개발회사인 아그로프레쉬사의 연구개발 전문가들이 직접 참석, 정확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 '누네띠네'는 식물체의 활력을 강화하여 작물의 건실한 생육을 유도함으로써 당도 증가는 물론 수확량 증대와 상품성



을 향상시켜 주는 신개념의 농자재이다. 또 곧 출시될 '스마트프레쉬'는 농산물의 맛과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안전하고 편리하며 경제적이어서 농산물 저장·유통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농측은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자재를 출시, 친환경농자재 산업을 선도함은 물론 농업인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정신으로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계는 3월 출시된 이후 3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단숨에 응애 약제 시장 순위 3위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반응이 적지 않았다.

한편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동부한농화학의 양제희 과장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응모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지만 응모자의 수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지존 액상수화제에 대한 농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참여해준 농업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농촌사랑대잔치'는 지난 3월 출시된 이후 기존 약제와 차별화되는 탁월한 약효로 주목받은 지존 액상수화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동부한농화학이 마련한 이벤트로 이번 증정식으로 행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동부한농화학, 태백시 농촌지도자연합회와 자매결연 맺어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위한 새로운 약제·제형 개발 약속

동부한농화학파 태백시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 고품질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8월 25일태백시 황지동 황지 라이온스 회관에서 거행된 이번 자매결연은 박종기 태백시 부시장과 방병국 한국 농촌지도자연합회 태백시 지회장 등 주요 인사를 포함 8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보여줬다.

박종기 태백시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자매결연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태백시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동부한농화학이 큰 역할을 맡아 달라”고 주문했다. 또 동부한농화학의 윤장욱 부사장은 “수입 농산물과 중국산 배추 수입으로 태백 지역 배추 농가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수준 높은 영농기술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를 희망한다”며 “자매



결연을 통해 동부한농화학이 태백 농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부한농화학은 각 공장과 지점별로 1사 1촌 운동에 참여하여 태백시 이외에도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지화마을, 경북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충남 예산군 오기면 내량리 2구, 전남 고흥군 파역면 봉촌마을, 경기도 광주군 실천읍 삼합리, 전북 완주군 원수계 마을 등 모두 7건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신젠타코리아, 신임 사장에 '스티븐 호킨스'씨



지난 3년 동안 신젠타코리아(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고 싸이몬 폴튼 케네디 사장의 후임으로 스티븐 호킨스(Steven Hawkins)사장이 내정됐다.

캐나다 태생으로 오는 9월 중순에 취임하게 되

는 신임 호킨스 사장은 기 제네카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신젠타 출범이후에는 스위스 본사에서 제품 총 책임자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북미지역의 전략마케팅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신젠타코리아 사장 권한대행으로 근무해 온 김용환 상무이사는 기존에 담당해오던 제품개발 등록부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Y